



# The Nursing Times

**Sol-Times 18th Edition**  
 회장 고남의 skadml1103@naver.com  
 기사부장 진윤정 yoonjung4665@naver.com  
 사진부장 김의현 trlieue@naver.com  
 발행부장 김하은 9801khe@naver.com  
 총무 강화경

VOL. 18

Published on .07.05.2017 Copyright © Sol-Times

## Medical terminology contest

기초 간호 세미나 경진대회



2017년 5월 31일 도서관 지하강당에서 현재 기초 간호 세미나를 배우는 간호학과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Medical terminology Contest(기초 간호 세미나 경진대회)가 열렸다. 1학년 학생들은 4명 혹은 5명의 인원로 팀을 꾸렸으며 5월 26일 수업시간에 예선전이 이루어졌다. 5월 31일 진행된 본선에서는 16개의 팀 중에서 최종 8개의 팀이 참가하였다. 대회는 총 5라운드로 진행되었다. 1라운드부터 3라운드까지는 골든벨 형식으로 문제에 대한 답을 칠판에 써서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4라운드는 몸으로 말하기, 5라운드는 스피드 퀴즈로 진행되었다. 이번 대회의 수상자에게는 장학금과 더불어 2학기 sol-challenge 참가자격을 부여하여 해외연수 기회가 제공된다. 이러한 기회 제공과 동시에 기존의 수업방식을 탈피해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이번 대회는 학생들의 열의가 높았으며 학습역량을 높일 수 있는 대회였다. 모든 학생이 적극적으로 즐겁게 참여해준 덕분에 이번 대회는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다.

김혜민 기자 / 사진: 정소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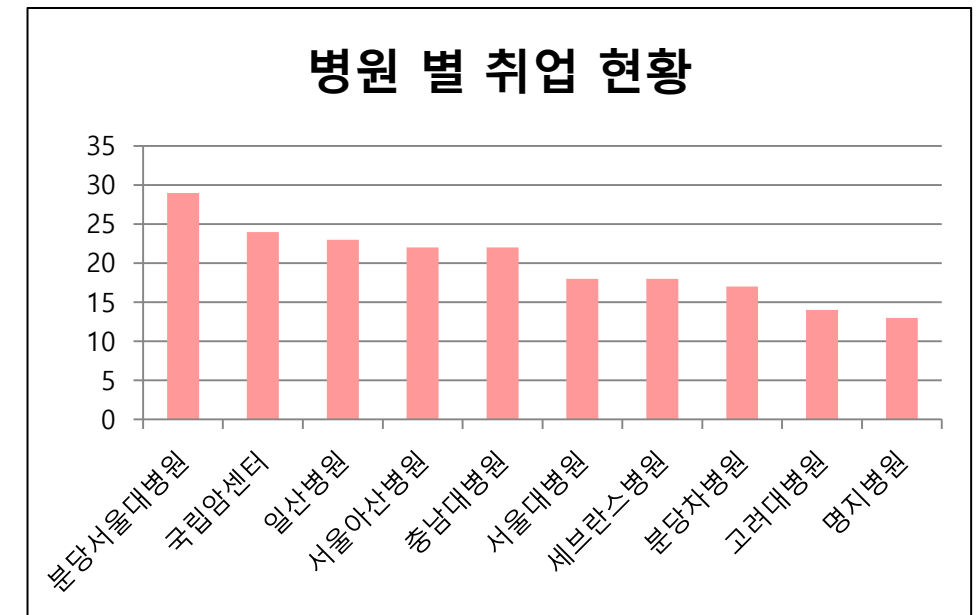
## 우송대학교, '잘 가르치는 대학' 선정



우송대학교가 2017학년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회가 선정한 '잘 가르치는 대학'에 포함되었다. 1995년 개교 이래 '글로벌 사회를 선도하는 바른 인성과 융합 역량을 갖춘 창의적 전문 인재를 양성한다'는 교육 목표를 가지고 특성화, 세계화 교육을 지향한 지 12년 만이다. 또한 2008년 국내 유일의 국제경영대학인 솔브릿지 국제 경영대학을 설립했으며 2014년에 국제경영대학발전협의회(AACSB)인증을 최단기간에 획득하였다. '잘 가르치는 대학'에 선정된 42개 대학교는 대학자율역량강화지원사업(ACE+)에 선정되어 향후 4년간 약 56억 원을 지원받게 된다. 더불어 우송대학교는 중소기업청에 의해 '취업 및 창업이 강한 대학'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향후 5년간 약 135억 원을 지원받게 된다.

차윤주 기자

## 의료기관 종별 취업 현황



의료기관 종별 취업 현황 (단위: 명,%)					
총	상급종합병원(56.6)		종합병원(39.5)		병원(3.9)
	Big 4	상급종합병원	국공립병원	대학병원	기타
309 (100.0)	91 (29.4)	84 (27.3)	59 (19.2)	63 (20.5)	12 (3.8)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5기 졸업생들이 309명 전원 모두 다양한 의료기관에 100% 취업에 성공하였다. 그중 56.6%의 학생이 상급 종합병원에 취업했으며 각각 Big 4 병원에 91명, 상급 종합병원에는 84명의 학생이 취업했다. 39.5%의 학생들은 국공립병원에 59명, 대학병원에는 63명의 학생이 취업했다. 기타 병원에는 3.9%로 12명의 학생이 취업하였다.

정설희 기자

## 진로탐색과 역량증진



2017년 5월 31일 수요일 도서관 대강당에서 간호학과 전 학년을 대상으로 1학년의 수업 과목인 '간호 철학과 역사'에 대한 특강이 진행되었다. 이 특강은 분당 서울대학병원의 CRC manager로 계시는 신용민 강사님이 오셔서 진행하였다. CRC는 Clinical Research Coordinator의 약자로 연구자와 함께 연구를 진행하는 전문 인력을 말한다. 이날 특강의 주제는 임상시험과 CRC에 대한 이야기가 중점을 이루었다. 특히 임상시험 중 1상은 건강한 성인 남성이 대상이 되고 2 상부터 4상은 환자가 대상이 된다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또한 임상시험의 주제 및 참여기관에 따라 의뢰자 주도인 SIT와 연구자 주도인 IIT로 나뉜다는 사실도 습득할 수 있었다. 간호학과 방재원 학생은 "CRC라는 직업의 역할과 CRC만의 매력을 알게 되었다" 라고 전했다. 이번 특강을 통해 학생들은 간호사가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진로분야인 CRC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임상시험의 분류와 진행과정에도 알 수 있었던 뜻 깊은 시간이었다고 답했다.

정소영 기자

## How to be NCLEX RN?

NCLEX-RN은 미국 내에서 간호사로서 기본적인 지식과 기술, 능력을 가지고 안전하고 효과적인 간호사 업무 수행을 위한 기술을 검증하는 시험이다. 미국 간호대학을 졸업한 자 혹은 미국의 각 주 Nursing Board에서 인정하는 외국의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해당 국가의 면허를 소지한 모든 간호사는 NCLEX-RN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이 시험에 합격 하면 미국 간호사 면허를 취득하게 된다.

NCLEX-RN의 시험형식은 컴퓨터 반응 시험(CAT) 1:1 Test이다. 시험 문제는 문제 은행식이며 문항마다 점수의 가중치와 난이도가 다르고 개인의 실력에 따라 최소75문제~265문제를 최대 6시간 동안 풀게 된다. 시험을 보는 중이라도 합격선에 도달하거나 미달하면 컴퓨터가 멈추고, 판단하지 못할 수준이면 판단 가능할 때까지 계속 진행된다. CAT의 장점은 응시자가 편리한 시험날짜와 시간을 선택 할 수 있으며, 조용한 분위기에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는 것과 결과를 빨리 확인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confirm을 클릭한 후 next 버튼을 누르면 답을 수정 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NCLEX-RN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뉴욕보드 서류 진행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첫 번째는 CGFNS, 뉴욕 보드 응시 원서를 준비하는 것이다. 이 과정은 외국에서 간호대학을 졸업한 간호사들의 미국 간호사 면허 시험 응시 자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두 번째는 서류 공증 받기 및 서류 발송이다. 서류 발송 후 1개월 이내로 '대한 간호 협회'의 "의료인과 간호 윤리" 수업을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세 번째로는 CGFNS심사가 진행되고 그 후 뉴욕 보드 심사가 진행된다. 네 번째는 인터넷으로 ATT신청을 한 후 시험 일정을 잡는 것이다. 보통 시험 일정을 잡는 데까지 약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고, 절차가 복잡해 응시자가 직접 신청하기 보다는 대행업체를 이용하여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다. 마지막으로 시험을 응시하는 것이며 이때 반드시 여권을 소지해야 한다.

NCLEX-RN 시험 준비는 보통 서류가 접수 되었다는 메일을 받고 시작하지만 개인의 영어 실력 등의 차이로 사람마다 준비 해야 할 기간은 다르다. 평균적으로 3개월에서 1년을 준비한 후 시험을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강화경 기자

## '우송드림이, 간호학과 전공을 알리다'



우송 드림이는 우송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자신의 모교를 방문하여 자신의 전공을 알리는 활동으로 우송대학교에서 실행하고 있는 기존과 다른 경험 중심의 입학 설명회이다. 간호학과 학생 중 18명이 우송드림이 활동에 참여하였고 이 중 강화경 학생과 백지원 학생은 2016년 6월 16일 '서산 여자 고등학교'에서 간호학과 전공에 대해 홍보를 하였다. 약 30명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우송 드림이 학생들이 우송대학교 간호학과의 교육과정, 학교 생활 및 기숙사 생활을 소개 하였다. 발표가 끝난 뒤에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질문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 추가적인 궁금증을 해결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서산여자고등학교 이슬 학생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송대학교 간호학과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고, 학교 선배님이었던 언니가 입학 설명회를 하셔서 평소 궁금했던 점이나 간호학과 생활에 대해서 더 편하게 물어 볼 수 있어서 좋았다.' 라고 말했다. 이처럼 우송드림이 활동은 재학생들의 실질적인 정보 제공으로 이루어져 고등학교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화경 기자

